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1957년 법주사주지 월산스님 진신법회후 기념촬영.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혜정스님.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은사이신 금오 스님은 첫 인상이 달마 스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스님을 뵈고는 단번에 '그래, 내 인생의 행로를 정할 수 있는 스승이 바로 이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나는 금오 스님과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고 출가인으로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역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 나에게 '마음자리'를 생각해 하는 일

화두에는 1천7백 공안이 있는데 각 화두마다 개성이 있어서 자신의 근기에 맞는 화두를 간택해야만이 깨달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수역사에서 마곡사로 와 행자생활을 하면서 나는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라는 화두를 간택했습니다. 이 화두는 지금까지 나에게 선(禪)으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화두야말로 나의 인생관을 뒤바꿔 놓

'신창원 신드롬'은 선악 판단 못한 혼돈한 중생의 성난마음 엄청난 결과 초래

를 계속 의심했는데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화두를 참구하면서 월추산 상경성암에서 3년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토굴생활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토굴수행이란 인적이 드문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조해야만 깨달음에 당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타행이라고 하는데 성불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오직 두타행인의 생활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신달타 티자도 바로 자신과의 싸움인 6년 고행을 통해 전성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상경성암에서 혼자 좌선은 물론 밥 짓고 빨래하고 나무며며 백정청구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죠. 그 때 출가인으로서

체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염불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면 꿈 속에서 도 항상 성현을 만나고, 마음이 쾌활하고 밝아집니다. 그와 반대로 남을 모략하고 중상하여 마음이 탁해지면 꿈에도 캄캄한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되지요. 그러니 극락은 어느 누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믿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전에 어느 군인이 모 스님을 찾아와서 '극락과 지옥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러자 스님이 반들개나 개 그 군인의 뺨을 후려쳤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군인이 부아가 날게 아니겠습니까. 그 군인이 아무리 도가 높다고 소문이 난 스님이지만 괴심한 생각에 혼내 주려고 권총을 뽑자 그 노장이 눈치 빠르게 그만 버선발로 내뺐습니다. 그러자 군인도 스님을 막 따라나와서 도량을 이리 돌고 저리 피하고 쫓고 쫓기기를 몇 바퀴 돌아보니 스님도 숨이 목에 차고 군인도 얼떨떨하고 쓰러지니까 스님이 '아, 그 참 지옥 설명하기가 힘드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군인이 한참 도량을 돌다 보니 감정도 좀 식아지고 몸이 노곤하여 반은 풀린데다가 그 소리를 한마디 탁 듣고 보니 '아하, 내가 둔했구나'하는 지혜가 일어나 '하하' 웃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극락일세."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극락과 지옥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어디에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모든 것은 우리 관념에서 일어납니다. '일체유심조, 삼계가 유식이요, 만법이 유심이라.'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만법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때 그때 대처하는 지혜도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은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 든든한 후원자, 지지자를 얻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라도 담담하게, 신나게, 멋있게 살아 가십시오. 그런 가운데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몸이 부서지기 이전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 내 스스로 하루 24시간 또렷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영경

(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지난 86년 뒤늦게 유학시절에 처음으로 <천수경> 독송을 시작했다. 내용이 비교적 쉽고 발문과 진언으로 이루어진 <천수경>은 힘든 유학생활에서 마치 영양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짧은 시간이나마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스릴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한 <천수경> 독송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금강경> 독송으로 바뀌게 되었다. 어머니를 통해서 느낀 존재와 인식의 허망함과 거짓됨에 대한 가르침을 <금강경>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없이 매일 매일을 <금강경>을 10년째 읽던 지난해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합천 해인사 인근에 건설될

생각을 하다보면 좋은 일은 그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우롱스님께서는 법회마다 스님 자신의 뺨을 철석 철석 때리시며 말씀하신다.

"우리는 남의 부모 될 자격도, 지식 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내다, 남이다. 불자다, 기독교인이다 말하지 말고, 남 허물보지 말고, 안으로 안으로 자기 단속 잘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복과 덕과 지혜가 가득찬 법계의 하나가 돼야 한다"

우롱스님과 나의 만남으로 인해 108배와 염불이라는 또 다른 수행이 시작됐다. 일상의 생활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와 화해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더운 여름날 비오듯 땀

10년째 금강경 독송하며 불교공부 108배 마치면 작은풀도 귀해 보여

예정인 도로 문제 때문에 공청회에 참석하고 스님 몇분과 저녁공양을 하면서 한 스님의 말씀 중에 재미삼아 흘러나온 "무식한 귀신에게는 진언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다. 이 말은 그동안



을 홀리고 108배를 끝내고 작은 동산을 내려오면 이 걸음 옮기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작은 풀까지도 귀해 보인다고 새롭고 새로운 존재로 보인다. 아마도

의 내 생활을 되돌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강경>을 읽었지만 그 속의 가르침을 되짚어 곰곰히 생각해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금강경>에 비추어 반성하고 개선한다는 생각조차 없이 보낸 10년 세월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내 자신이야말로 비할 바 없이 무식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로 그 때부터 한글본 <금강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 늘 말하는 그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매일 매일 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을 뵈었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부딪치는 모든 인연은 나름대로 중요함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서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첫 걸음이었었고, 그 힘든 일의 시작은 아주 좋은 일로부터

발생한 것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잠깐으로도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사물의 존재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 진정한 불자로서의 수행은 이렇게 투명한 상태를 몸과 마음으로 유지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보면 내가 불자로서 하고 있는 것은 수행이라기보다 마치 불법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다. 적당히 넘어가고 싶을 때, 우물대고 싶을 때, 게으름을 피울 때마다 "바위에 피가 베이도록 진실해야 한다" "세상은 장성 성(誠)자 하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큰스님들의 법문을 되새기며 참불자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다.

아직 가야할 길은 아득하지만 이렇게 완성이 계속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으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을 잊지 않고자 한다.

모든 불자들이 업보업장 해탈하고 세세생생 부처님전에 복 많이 짓고 행복하길 바란다.

마음자리 찾는것은 자기와의 싸움 '불교와의 인연'은 삶의 든든한 후원자

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원주스님이 당신에게 온 한 장의 편지를 주면서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내용인 즉 여기에 분명히 적어 보내니 꼭 한 번 읽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통한 것은 하얀 종이 한 장뿐이었죠. 그 백지 종이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원주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그 스님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참구해 보세요. 화두가 없으신 분은 화두로 삼아 참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군요. 행자 생활 2년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화두를 참구하며 수행인으로서의 자세를 놓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비록 출가하기 전 행자라고 할지라도 화두만은 꼭 챙기게 하셨습니다.

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화두는 글방이라도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았습니. 삼경(三更, 밤 11시~새벽1시)이 지나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마곡사의 하루는 적막을 깨는 도량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 철야 용맹 정신을 하는데 앞 벽이 무너지면서 공중이 붕 뜨는 것 같은 경지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경지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부터 참선이라는 것이 인생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40여 년간 이를 순실하게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화두를 탁마할 때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를 관하는 것이 아니라 '만법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한 두타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선종 일변도로 가다보니 자연 교(敎)와 율(律)이 선(禪)에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율을 출가사문의 입장에서 생명의와 같은 것인데도 말입니다. 계·정·혜 삼학을 바로 지킬 때, 선방이나 강원에서 계를 지킬 때, 선·교·율이란 길임을 깨달을 때, 참구처를 만나는 것입니다. 선이 맞는 사람은 선을, 주력이 맞는 사람은 주력을, 기도가 맞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의 근기에 맞게 수행할 때 깨달음은 좀더 가깝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출가인에게는 오직 견성성불을 위해 24시간 화두를 놓지 말고 이르고, 신도들에게는 참선, 간경, 염불 등 자신의 근기에 맞게 해야만 부처님의 진리를

Advertisement for Buddhist publications and events. Includes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8월 25일, 음 7월 15일) and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8월 25일, 음 7월 15일, 수요일). Lists various books and their prices.

Advertisement for '백중절 영가천도대법회' (8월 25일, 음 7월 15일). Features a book '왕생기도와 천도재' and lists prices for various edi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불교서원.

Advertisement for '왕생기도와 천도재' (King's Birth Prayer and Heaven Offering). Includes a photo of the book cover and detailed pricing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 for 불교서원 is provided.